

# 임업의 복합적 경영

안 봉 원 / 경희대학교 교수

## 1. 산에 대한 인식의 변천

시대에 따라 산을 보는 시각도 많이 변천해 왔다. 이조시대까지는 산에 대한 소유관념이 없이 무주공산의 상태로 이용하였고 1900년대 초반까지 이어 오면서 산 밑에 사는 주민이면 소유에 관계없이 입산하여 누구나 자유로이 연료를 채취하거나 가재용구를 마련하여 쓰는 곳으로 생각해 왔었다. 이와같은 무주공산의 관념은 결국 산을 황폐화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산사태와 홍수피해를 연례행사처럼 받아야 했었다.

1960년대부터는 산을 다루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일반국민의 의식은 모두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산을 녹화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여겨왔으며 임업의 경제성이나 활용방안보다는 국토보전이라는 대명제아래 치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림이나 사방사업에 산의 소유주에 관계없이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이 시기에는 임업은 있으나 임업경영은 없었고 산주는 있으나 산림소득은 없었다. 투자의 측면에서도 일부 독립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투자할 능력도 또 관심도 없어 정부주도하에 치산사업을 해왔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부의 강력한 치산정책에 의

해 산은 푸르러졌고 축적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다.

1980년대에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서 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산에 대한 투기는 임업을 하려는 뜻 보다는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경향이 많아져 회임기간이 긴 임업경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가지 측면은 여가를 즐기는 도시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산을 여가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추세에 대응해서 정부는 경관이 수려한 산을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지정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근교림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이용자들을 맞아드리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하에서 산림을 토지생산업으로 경영해 나가기에는 매우 어렵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2. 산림의 간접효용과 산주의 입장

산은 산주의 소득원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우리의 국토이며 국민모두가 다함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국토를 보전하고 수원을 함양하며, 아름다

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게 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등 실로 그 효용은 계량화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날 유형, 무형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산의 간접효용이 산주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벌채를 할 수 없고 유용한 경제수종으로 갱신할 수도 없다면 산림소유자로서는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는 것이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소유산림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개인소유인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논이나 밭과같이 산도 토지생산업으로서의 임업을 영위하는 산주가 투자하여 장구한 시간 정성껏 가꾸고 길러 놓은 결과가 각종 규제에 얽매어 수확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것 때문에 공원으로 묶이고 보호림으로 묶여 도시인들이 이용하고 산을 훼손시켜 놓고 있으며 그나마 입장료는 공영관리청이 받고 있음을 볼때 산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공원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조림이나 벌채등 시업을 할 수 있게는 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산림보호 이외의 시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국의 경향이어서 산주만이 피해를 당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국에서도 정상적인 시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산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3.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임업경영**  
이제 산림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임업의 방향도 복합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토지생산업으로서의 임업에 국한지을 것이 아니라 2차, 3차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조림이 성공되면 목재자원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발전, 농업, 식수등의 수자원이 함양되고, 레크레이션, 운동등 여가활동공간이 마련되면 기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효용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같은 효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림을 성공시킨 산주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은 크나큰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투자한 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 수혜자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저수원이 될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댓가를 치루어야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건강을 위하는 장이 될때에는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임업경영은 임산자원의 증식과 더불어 간접적 효용으로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된 임산물을 가공판매하는 데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서 경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다목적 산림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4. 3차산업으로서의 임업경영**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국민소득이 올라 가면서 여가인구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

치 못하여 공원이나 유원지등은 큰 혼잡을 이루고 있다. 이들 여가활동의 장소는 대부분 아름다운 숲을 택하고 있어 잘 가꾸어진 산림이야말로 이들 행락인구를 수용하는데 매우 소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산을 입산금지 시키고 단순한 목재 생산의 터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여가인구를 상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행락인파를 무질서하게 또 무원칙하게 수용한다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훼손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자연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전제하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산림청이 뒤늦게나마 휴양림제도를 도입하고 우선은 공국유림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원하는 사유림산주에게도 기회를 부여

하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해주어 산주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의 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산이 다시금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인원의 입산, 제한된 장소에서만 이익,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3차산업을 임업에서도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산은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이제 산림사업의 내용도 목재를 생산하면서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경관림사업방안이 연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보호만하고 육림이나 벌채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임산물의 수확도 극대화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산림사업을 할 때 비로서 산림의 복합적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숲에 가거라

하이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예쁜 새들이 노래하는  
고요한 숲으로 나는 가겠오.  
세월이 지나 무덤 속에 내가 잠들면  
내 눈과 귀 흠으로 덮일 것이니  
꽃의 아름다움 그뻔 보지 못하겠지  
예쁜 새의 노래소리 어이 들겠오.